옥상 및 벽면 녹화 사업, 회색빛 콘크리트를 자연 녹지로

- 서울시 건물주에게 설계와 공사비의 50~70% 지원, 올해55개 건물 녹화 추진 -

서울명동의한국유네스코직원들은점심을먹고나면인근의찻집대신옥상을즐겨찾는다. 옥상 녹화 사업으로 옥상에 190여 평짜리 미니 공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옥상에는벤치등휴식공간이갖춰져있다. 하지만자판기등은일부러비치하지않았다. 그런만큼차나커피는스스로챙겨가야한다. 이옥상공원은 2002년조성된이후직원이아닌일반인에게도개방하고있어다른직장의직원들도즐겨찾는도심의명소이다.

서울 도심의 지붕색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의옥상녹화사업으로회색빛콘크리트일색이었던 옥상이푸른색으로옷을갈아입고 있다. 도심 빌딩의 녹화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다. 서울시가 도심에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더불어 도심의 열섬현상등을해소하기위해시작했다.

망설이던 건물주들 속속 참여

처음에는망설이던건물주들도다른건물들의 성공적인 녹화 사례를 본 후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신청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2002년녹화사업시작이후지난해까지 모두 262개 민간 건축물이 옥상 녹화를 신청했다. 하지만서울시는예산부족, 구조불안 등으로 46곳밖에 지원해주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녹지는 민간 1만 7,531㎡(46개 건물), 공공 3,645㎡(5개 건물) 등모두2만1,176㎡이다.

이 가운데 서울 명동의 한국 유네스코회관이나 성북구 안암동의 고려대학교, 성동구벧엘몬테소리유치원등은 대표적인성공사례로 꼽힌다. 특히, 벧엘몬테소리유치원은 환경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돼 어린이들의인기를독차지하고있다.

한국 유네스코회관에는 초화류 6,120여본이심어져있다. 또한, 파고라와환경해설판, 평의자등편의시설을설치했다. 주변의 명동성당, 덕수궁, 남산공원 등으로 이어지는생태통로역할을하고있다. 개방시간은 오전 10시에서오후 4시까지이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도시 생태 문화학교를운영하는등자연학습및생태교육장으로제몫을하고있다.

공공 기관 중에는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본관과서소문동의별관이녹화사업을마쳤고,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구 공덕1동서부지방법원, 관악구신림7동신림사회복지관이녹화사업을마쳤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의 10만 개 건물의 옥상을 녹화한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10만 녹색 지붕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건물을대상으로녹화를추진하는경우건물주에게구조안전진단비용일체와설계및공

서울성동구소재벧엘몬테소리유치원의옥상녹화.

사비의 50~70%를 지원해주고있다.

하지만 예산이 적어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는못하고있다. 올해는시예산27억원과복권 기금 등에서 지원되는녹색 자금6억 7,500만원등모두 33억 7,000만원을옥상녹화에사용한다. 올해목표는민간36개소, 공공19개소 등 모두 55개 건물을 녹화하는것이다.

서울시는 일정 기준을 정해서 옥상 녹화 대상 건물을 선정하고있다. 고려 사항으로는 도심지 건물 등 활용도가 높은 곳, 학교 · 어린이집 · 문화센터 등 환경 학습 공간활용도가높은곳, 공공및복지시설등으로 다중 이용 건물, 주변 공원 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건축물의 안전성을확보한건물등이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옥상 녹화 효과

옥상 녹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그효과가크다. 우선은시각적인효과이다. 대부분의 옥상은 방수 처리한 파란색이나회색이대부분이다. 그나마이것은나은편이다. 일부건물은물건을쌓아놓거나냉각탑등으로인해미관을해치는경우가적지않다.

옥상녹화사업은이런보기좋지않은경관을개선해준다. 특히, 서울시가신경을쓰는부분은서울도심이다. 남산등지에서내려다볼때삭막한회색공간을줄이고, 도심의열섬화현상을막아보자는취지에서다.

옥상녹화는도시열섬현상의완화및냉난방비용절감효과도뛰어나다. 실제로시카고시청사의 경우 녹화가 이루어진 이후 여름철온도가주변보다평균7도나낮아졌다고 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옥상 녹화로냉 · 난방에너지의16.6%를 절감할수 있다는연구결과를내놓기도했다.

옥상녹화는또한공기질개선에도큰효과가 있다. 100㎡의 옥상을 녹화하면 매년 2kg의 오염물을 줄이고, 두 사람의 성인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생산한다고 한다.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흙을 10cm 이상의 두께로 쌓은 뒤 녹화를 하면 100㎡당 200~300ℓ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홍수방지등에도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져 있다.

도심서 귀뚜라미가 울고 나비가 춤춰요

서울시의 조사 결과 옥상을 녹화한 이후 이들도심공원에는모두 35과 60종의곤충들이찾아온것으로나타났다.

묵은실잠자리, 고추좀잠자리, 알락귀뚜라미, 왕귀뚜라미…. 이들은주로봄에찾아오는 곤충들이다. 가을에는 모메뚜기와 실베짱이가 찾는다. 알락방울벌레, 애소금쟁이, 묵은실잠자리는 봄, 여름, 가을을 가리지않는 단골손님들이다. 나비도달라진옥상의단골손님이다. 배추흰나비에서부터남방부전나비, 네발나비등이 발견됐다. 벧엘몬테소리유치원에는 봄이면 올챙이가 부화되어어린이들을즐겁게하기도 했다. 이처럼옥상녹화는도심경관을개선하고, 망가진 도시 생태계도 복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옥상 녹화는 우리보다는 선진국들이 훨씬먼저도입했다. 장려차원을넘어제도화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일본의경우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는 옥상 면적의 20%를 녹화하도록 의무화한 지 오래됐다. 독일은도시의43%가옥상녹화에경제적인센티브를 제공 중이고, 미국의 시카고시는 주거와 상업 업무용 옥상 녹화시 5,000달러까지지원해주고있다.

옥상을 녹화하려면 먼저 자치구를 통하여 서울시에 옥상 녹화 접수를 해야 하며, 건축물예비진단및현황조사를거쳐서울시가지원대상후보지를정하게된다. 선정과정에서는 옥상녹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나서서 본

한국유네스코회관옥상전경.

격적인구조안전진단을한다. 구조가불안한건물에는 하중을늘리는옥상 녹화가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통과한건물을 대상으로 다시 옥상녹화자문위원회의 심의를벌여대상을최종선정한다.

이관문을통과한건물은설계및시공업체를선정하고, 이들은 시가주최하는옥상녹화 아카데미에서 정보 제공 및 옥상녹화 자문위원회의 설계 검토와 기술 자문을 받는다.

옥상 녹화가 끝나면 건물주는 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있으며 시는자치구와자문위원회공동으로 현장에 나가확인을 한 후 보조금을지급한다. 지원신청은보통3월에 25개자치구별로공원녹지과에서받는다.

담장 녹화도 병행

서울시는 회색빛 콘크리트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석축, 담장등인공구조물벽면도담쟁이 등덩굴성식물로푸르게바꾸는‘ 벽면녹화사업 ’도병행하고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담장 등 37개소4.8km 구간의회색벽면을푸르게바꿀계획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옥상및벽면녹화사업은 회색빛 콘크리트를자연 녹지로 바꿔 도시 경관을 바꾸고, 삶의 질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설명하였다.CJ

김성곤
서울신문지방자치부차장